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삶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 일 예배 2025년 12월 14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주 예수 이름 높이어 / 찬송가 37(신) 37(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곧 오소서 임마누엘 / 찬송가 104(신) 104(구)

기도 / 최명희 권사

성경 봉독 / 골로새서 3장 1-4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우리의 시작을 생각하면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 박화신 목사

찬송 /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찬송가 366(신) 485(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기쁘다 구주 오셨네 / 찬송가 115(신) 115(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성도의 삶은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신분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변화되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2. 그러므로 성도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하늘의 관점에서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3. 지금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나, 장차 영광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생명샘 장로교회 2025년 표어

디모데전서
4장 15-16절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난 주일 설교 소명과 사명 출애굽기 4장 11-12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과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출 3:12)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찾으신 것이 아니라, 소명에 순종할 사람, 즉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마음을 경험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흔들릴 때, ‘조금만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앞에서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종입니다. 작은 선택과 결단이 쌓여 결국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열매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부르심 앞에서 주저할 것인가, 아니면 부족함에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겠는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다만 부르신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완벽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오늘, 한 걸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샘 소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라는 표어로 남은 귀한 시간들을 끝까지 정진하셔서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다음 주 12월 21일을 성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EM 과 연합 예배 드립니다.
5. 12월 28일 주일 예배 직후에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6. 12월 31일 수요일에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7시에 모여 친교한 후에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롭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 이번 주 기도제목

성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신정호(미얀마), 강승우(파라과이) 선교사님 위해
2025년 한 해를 정리하며 주님께 감사하기

12월 예배 위원

안내	박래석	최명희
----	-----	-----

기도	한광기(7)	최명희(14)	최상천(21)	조은영(28)
----	--------	---------	---------	---------

교회 모임 안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제직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성경공부	성경 읽기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더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하루의 첫 생각이 무엇인지, 염려와 분노, 계산과 비교가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불들고 있는 생각이 곧 우리의 믿음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일에는 하늘의 것을 말하지만, 평일에는 땅의 논리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손해 볼까 두려워 침묵하고, 편해지기 위해 진리를 미루며, 믿음보다 안전을 먼저 계산합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향해 분명히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의 훈련을 시작합시다. 선택의 순간마다 “이 결정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말과 행동, 시간 사용 속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십시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도 하늘의 생명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